

교통안전
그림 동화책

나만의 수호천사

안전 키링 호동이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을 알려주는 일을 하면서도,
바쁜 업무 속에서 정작 내 아이들 곁에는
충분히 있어 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아 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마스코트 ‘호둥이’를 보며,
우리 아이들도 위험한 순간마다 호둥이처럼 지켜 주는 존재가
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스스로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보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책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김명석 부장님,
함께 고민하고 작업해 준 김근형 교수님과
안전교육부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엄마를 기다려 주는 영찬이와 서안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등장인물 소개



장바른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해볼래!”라고 말하는 용감한 아이예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교통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호동이

아빠를 대신해 바른이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작은 인형이에요.

작고 귀엽지만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바른이 아빠

바른이에 대한 사랑이 깊어요.
바쁜 날이 많아 바른이와 자주 떨어져 있지만,
늘 바른이를 생각해요.

바른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호동이 인형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바른이 친구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주말 아침.

바른이는 아빠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바른아, 이번에는 할 수 있어!”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꼭 잡아 주셨어요.

바른이는 입술을 꼭 다물고 페달을 힘껏 밟았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그런데 그만,
자전거가 비틀비틀.
바른이가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야!”

무릎이 까져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바른이는 꼭 참았답니다.



아빠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질 때마다
아빠는 말없이 바른이를 번쩍 일으켜 주셨어요.



‘포기할까?’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바른이는 이를 꼭 깨물고 외쳤어요.

" 다시 해 볼래요! "



“자, 이제 아빠 손 놓는다?” 아빠가 말했어요.

바른이는 대답 대신 페달을 힘껏 밟았지요.

바른이의 자전거가 잠깐 비틀거리더니

이내 똑바로 균형을 잡았어요.

"와아! 아빠! 저 보세요!

혼자서도 탈 수 있어요!"

시원한 바람이

바른이의 얼굴을 상쾌하게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 바른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 내일도 자전거 타요!”

그런데 아빠 얼굴이 왠지 조금 슬퍼 보였어요.

“미안해, 바른아. 아빠가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왜요?”

바른이의 눈이 동그라졌어요.

“아빠가 내일부터

멀리 출장 가야 하거든.”



“나는 아빠와 또 자전거 타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아빠하고 같이 논다고요!”

“아빠 미워!”

아빠는 조용히 무릎을 굽혀 바른리와 눈을 맞추었어요.
아빠의 눈이 조금 슬퍼보였어요.



아빠는 말없이 바른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인형 키링 하나를 살며시 건네주었습니다.

"아빠가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대신, 이 인형을 선물로 줄게."



“이 인형의 이름은 **호둥이**야.

여기에는 아빠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

바른이는 동그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빠의 마음?”

“응, 아빠 대신 우리 바른이를 **안전하게 지켜 줄 수호천사**야.”

바른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바른이의 손에 호둥이를 꼭 쥐어 주었어요.

바른이는 눈물을 닦고는 호둥이 키링을 가방에 꼭 달았어요.

그때였어요!

바른이는 듣지 못했지만 호둥이가 속삭였지요.



"바른아! 아빠가 없는 동안,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애들아, 너희도 함께 지켜봐 줘!"

터덜터덜.

"아빠 보고싶다."

바른이는 가방에 달린 호둥이를 살짝 만져 보았어요.



따뜻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마치 아빠가 바로 옆에서 같이 걷는 것 같았어요.

교실 안은 아이들 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오늘 학교 올 때 내리막길에서 뛰었는데 엄청 빨랐어!”

“자전거로 내려가면 더 빠를 걸?”

“누가 자전거 타고 내려가 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어요.

**아니야!
야! 내가 더 빨라!**



바로 그때,
문을 열고 바른이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른이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제 자전거 탈 수 있어!"

아이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바른이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너 얼마 전까지 자전거 못 탔잖아!”

바른이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지요.

“그럼 내리막길에서 탈 수 있어? 어려울 텐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당연히 탈 수 있어!”

바른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바른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리막길에서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학교가 끝난 후, 아이들은 함께 등굣길 내리막길 앞에 섰어요.

“장바른! 저기서 타봐. 더 멋있을 거야!”



"길 좀 봐. 꽤 가파르지?
자전거 타기 전에는 안전모를 쓴 다음
브레이크가 잘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
바른이는 알고 있을까? 걱정된다."

바른이는 잠깐 망설였어요.

막상 내리막길을 보니 생각보다 가팔라 보였거든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야, 할 수 있어!’

바른이는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승!

자전거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점점 더 빨라졌어요.

“어...?”



덜컹덜컹!

작은 돌멩이에도 자전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호둥이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바른이는 자전거의 양쪽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잡았어요.

다행히 자전거가 멈췄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눈 앞으로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 하..."

바른이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휴, 정말 다행이야.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금방 빨라지거든.

타기 전에 브레이크가 되는지 꼭 확인하고,

주변도 살펴야 해."

그때, 지켜보던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야, 장바른! 괜찮아?”

“자동차와 부딪힐 뻔하지 않았어?”

“다치는 줄 알았어!”



바른이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지요.

아이들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신나 보이기만 했던 길이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온 뒤.

학원에 갈 시간이 된 바쁜이.

누군가를 기다리듯 달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호동이 인형을 괜히 한번 쳐다본 뒤,
집을 나섰지요.



훅

‘늦겠다.’

바른이는 학원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툭.

공 하나가 바른이 쪽으로 날아오더니

발에 맞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굴러갔어요.



“장바른! 공 좀 차 줘!”

길 건너편에서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야! 장바른!



바른이가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로 달려 나가려는 순간,

호둥이가 세게 흔들렸어요.



"바른아! 조심해!

**바른이가 자동차들에 가려져서
운전하는 아저씨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
주변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해!"**

그 순간, 며칠 전 일이 번쩍 떠올랐어요.

빠르게 달리던 자전거.

눈 앞을 스쳐 지나갔던 자동차.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바른이는 고개를 들어 주차된 차들을 바라봤어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가

마치 벽처럼 가려져 있었어요.



그때, "부우웅!"

자동차 한 대가 줄지어 있는 자동차들 옆으로 스치듯 지나갔어요.



조금 전까지 바른이가 뛰어가려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휴,
진짜 부딪힐
뻔했네!



놀란 바른이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 아저씨는 내가 여기 있는지
안 보이는구나!



“야! 장바른! 빨리 던져줘!”

친구들이 다시 바른이를 불렀어요.

빨리!
빨리!!!



바른이는 공을 잡는 대신,
주위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지나가는 자동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천천히 공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 달린 호동이 인형을 잠깐 바라봤어요.

바른이는 짧게 말했어요.

"여기는 안 보여서 위험해. 그렇지?"



호동이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른이는 돌아섰어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횡단보도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호두이가 흐뭇하게 바른이를 바라봤어요.



"잘했어. 바른아!"

왼쪽.

오른쪽.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한 뒤에,
바른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친구에게 공을 건네주고 다시 학원으로 향하는 길.



호둥이가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바른이는 몰랐지만요.

"오늘 잘 지켰어, 바른아."

그날 저녁.

바른이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왠지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아빠 언제 오시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때,

문 앞에 놓인 신발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어요.

크고, 조금은 낡았지만

누구보다 익숙한 신발이었어요.



바른이는 가만히 멈춰 섰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빠?'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심장은 크게,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아빠
...?

바른이는 반가운 마음에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빠

!!!





"수고했어. 바른아.
그리고 함께 지켜본 너희도!"

횡단이 가능한 시설

💡 소리 내어 읽고, 따라 써 보아요.



횡단보도



육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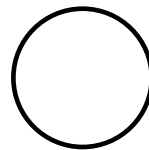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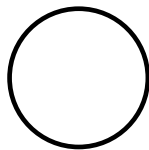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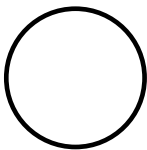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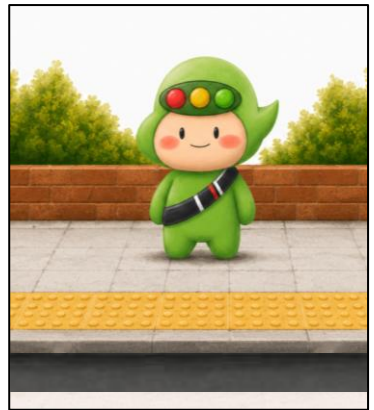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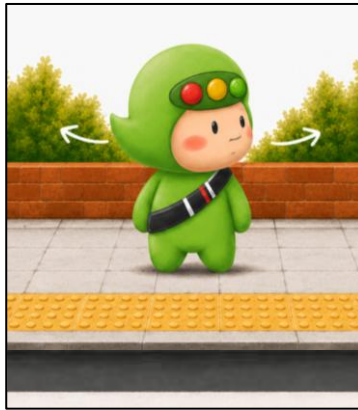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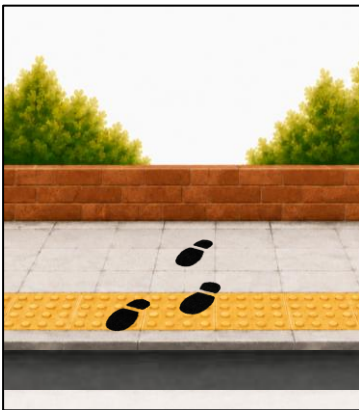
지하도

횡단보도 3가지 약속

💡 순서에 따라 숫자를 써봐요.



1. 서다 2. 보다 3. 걷다



자전거 관련 표지판

💡 표지판 이름을 연결해 보아요.



•

•

자전거
횡단도



•

•

자전거
통행금지



•

•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안전 O, X 퀴즈



💡 문제의 정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요.

- 1**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 2**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공이 굴러가면 바로 뛰어가서 잡아야 한다.



- 3** 골목길에서는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





_____는(은)



오늘도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켰어요.

월

일

요일 / 날씨:

정답

횡단이 가능한 시설

💡 소리 내어 읽고, 따라 써 보아요.



횡단보도



육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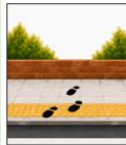
지하도

횡단보도 3가지 약속

💡 순서에 따라 숫자를 써봐요.



1. 서다 2. 보다 3. 걸다



3



2



1

자전거 관련 표지판

💡 표지판 이름을 연결해 보아요.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안전 O, X 퀴즈

💡 문제의 정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요.



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②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 공이 굴러가면 바로 뛰어가서 잡아야 한다.



③ 골목길에서는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



나만의 수호천사

안전 케어 호동이

발행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

기획총괄 | 안전교육부 부장 김명석

집필 | 안전교육부 교수 김희선,
교수 김근형

감수 | 안전교육부 차장 이경영,
교수 강예린, 김도연, 김민정,
김혜원, 김혜정, 박기훈,
박미정, 박재은, 성가현,
이강희, 이예지, 이주원,
지상구, 한서희, 한현섭

발행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안전교육부

